

# '원조디바' 엄정화, 8년만에 컴백

### 미스틱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정규 10집 '더 클라우드드림 오브 더 나인' 발표

'원조 디바'로 불리는 가수 엄정화가 8년 만인 27일 정규 10집 '더 클라우드드림 오브 더 나인'(구운몽)을 발표했다.

윤종신이 이끄는 미스틱엔터테인먼트와 손잡은 이번 앨범의 프로듀싱은 조영철 프로듀서가 맡았다.

조 프로듀서는 아이유, 브라운 아이드 걸스 가인 등의 노래를 기획하며 특히 여성 가수 앨범에서 역량을 보여준 히트 메이커다.

엄정화와 조 프로듀서는 이번 앨범 테마로 고전 소설 '구운몽(九雲夢)'을 택했다. 조 프로듀서는 고고하면서도 신비감을 지닌 엄정화의 캐릭터가 이 소설의 제목 '구운몽'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이번 앨범은 내년 완성될 정규 앨범의 파트 1격으로 총 4곡이 실렸다.

첫 번째 타이틀곡 '드림어(Dreamer)'는 윤상의 프로듀싱팀 '원피스'가 작곡하고 김이나가 작사했다. 슬프면서도 화려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일렉트로닉 기반의 디스코 장르다.

또 다른 타이틀곡 '왓치 미 무브(Watch Me move)'는 엑소 사니 등과 작업한 작곡가 신익이 만든 딥 하우스 장르의 업템포 댄스곡이다.

두 타이틀곡 모두 팝스타 비윤세의 '싱글 레디'로 유명한 안무가 존테(Jonte)가 퍼포먼스 연출을 맡았다.

엄정화는 전날 밤 SBS TV '2016 SAF' 가요대전과 같은 날 밤 진행한 네이버 V앱 카운트다운 라이브 : 아메이징을 통해 퍼



8년 만인 27일 정규 10집 '더 클라우드드림 오브 더 나인'(구운몽)을 발표한 엄정화는 전날 밤 SBS TV '2016 SAF' 가요대전과 같은 날 밤 진행한 네이버 V앱 카운트다운 라이브 : 아메이징을 통해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번 앨범의 화려한 컬러배이션 군단 역시 눈에 띈다. '오 예는 사니' 종현이 피쳐링에 참여했다. 달콤한 종현의 목소리가 엄정화의 보컬과 어우러졌다. 추후 공개될 5곡 중에는 이효리가 참여한 '달루진', 정려원이 피쳐링한 '포토그래퍼' 등이 포함됐다.

엄정화의 이번 컴백에 대한 가요계의 관심은 컸다. '드림어'가 엠넷의 실시간차트에서 한 때 1위를 차지하기도 했으나 화제성에 비해 음원차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빅뱅, 엑소 등 대형 그룹과 불발간 사춘기 등 음원강자, '노개비' OST가 이미 집결한 차트는 견고했다.

가요계 관계자는 "엄정화가 음원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건 아쉽지만 10~20대 위주로 소비되는 이 시장 흐름상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며 "새로운 프로듀서 작곡가와 협업한 건 분명 좋은 시도였다. 내년에 발매될 파트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고 말했다.

/뉴시스

### EPL 첼시, 구단 역사상 최다 12연승 질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의 질주를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첼시가 또 이겼다.

첼시는 27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포드 브리지에서 열린 2016~2017 EPL 18라운드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3-0 승리를 거뒀다. 12연승을 달린 첼시는 구단 최다 연승 기록을 새롭게 썼다. 15승1무2패로 선두 자리도 굳게 지켰다.

첼시는 전반 24분 만에 페드로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다. 후반 4분에는 에당 아자르가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차 넣어 2-0을 만들었다. 첼시는 후반 추가 시간 상대 자책골을 보며 3골차 대승을 완성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선덜랜드를 3-1로 제압했다. 최근 4연승이다.

맨유는 9승6무3패(승점 33)로 6위를 유지했다.

맨체스터 시티는 첼시타를 3-0으로 꺾었고 아스날은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을 추격을 1-0으로 뿌리쳤다.

/김민근기자

### 트와이스 미니 3집, 올해 걸그룹 최다 음반 판매

대세 그룹 '트와이스'의 인기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의 세번째 미니앨범 '트와이스코스터 : 레인'은 28일 기준 34만7000장이 팔렸다. 지난 10월 24일 발표된 지 2개월 만이다.



올해 35만장 돌파도 유력시되고 있다. 올해 걸그룹 최다 음반 판매량이다.

JYP는 "남자 아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반 판매량에서 약세를 보이며 5만장 판매고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여자 아이돌 그룹 시장에서 거둔 성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자랑했다.

앞서 트와이스는 지난해 10월20일 발표한 데뷔 앨범 '더 스토리 비긴즈'의 판매량은 10만장이었다. 올해 4월25일 발표한 두번째 미니앨범 '페이지 투'는 18만장이 팔렸다.

이에 따라 트와이스는 데뷔 1년2개월 만에 세 장의 음반을 합쳐 총 62만7000여장을 팔아치웠다.

/뉴시스

## 전북체육회의 2016년... 변화·혁신 통한 조직체질 개선

### 올해 종목단체 통합으로 조직 개편... 전국체육대회 등 여러대회 성적 우수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2016년 체육계 인력의 크고 작은 변화의 물결속에서도 성공적인 체육단체 통합을 이루어 내며 전북체육의 저력을 과시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전북체육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수립한 통합체육회는 지난 3월 3일 창립총회를 갖고 2차 1실 7과의 '전라북도체육회'가 출범했다.

전북체육회는 14개 시군체육회와 65개 종목단체의 통합을 함께 추진하며 효율적이고 일원화 된 체계로 조직을 개편했다.

이러한 노력은 충청남도 일원에서 열린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전북선수단은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34개 종목에서 금 57개, 은 40개, 동 82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11위의 우수한 성적을 만들었다.

지난해 10위에 이어 2년 연속 순위가 상승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또한 꿈나무들의 스포츠 제전인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전북 선수단은 금 21개, 은 23개, 동 3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11위 우수한 성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장을 만들기도 했다.

동호인들의 최대 행사인 '2016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3개 종목 1,010명의 전북 선수단이 참가해 생활체육 활성화의 기반을 닦았다.

활롱한 한해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북체육은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전북개최로 정점에 달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체육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금년 정읍시청과 장수군청이 실업팀을 창단해 전북체육 화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 처럼 다른 시군청명 역시 실

업팀 창단에 대한 관심을 두고 이에 따른 시설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라북도체육회 최형원 스포츠진흥처장은 "2016년은 무엇보다 전북체육회의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 체질 개선에 힘을 실은 한해로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한 해였다"며 "다가오는 2017 정유년(丁酉年) 새해에는 조직안정화를 통한 선진 전라북도체육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육인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협심하여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 1993년 개봉 '델마와 루이스' 내년 1월 재개봉

영화 사상 인상적인 엔딩 장면으로 남은 '델마와 루이스'가 다시 온다. 지난 1993년 국내 개봉한 이 영화는 '여성 버디무비'의 바이블'로 평가 받는다.

세상 밖으로 내몰린 두 여인의 눈부시고도 짜릿한 일탈을 그렸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여행을 떠난 두 여인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한 남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끝을 알 수 없는 긴 여정을 시작하면서 느끼게 되는 삶의 가치와 진정한 자유를 활용한 비주얼로 그려낸 빈티지 버디무비다.

수잔 서랜든의(델마) 가장 완벽한 인생작으로도 꼽히는 이 영화는 지나 데이비스(루이스)의 '걸크러시'와 '카리스마'가 폭발한다. 또한 '찬란한 젊음'이 그대로 저장된 '미소녀' 브래드 피트의 풋풋함도 '심쿵'하게 한다.

'바선'(2015), '프로메테우스'(2012), '헤어리언'(1979) 등 압도적인 비주얼과 탄탄한 연출력이 빛나는 할리우드의 거장 리틀리 스콧이 감독의 작품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질주', '델마와 루이스'는 2017년 1월 12일 개봉한다.

/뉴시스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